

한국 대학생의 고민

손봉호(대표주간)

인철수 교수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젊은이들의 고민을 잘 이해하기 때문이라 한다.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면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나 같이 1950년대에 대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요즘 대학생들의 불평은 배우는 사람들의 암살 같아 보인다. 그때 우리는 자주 굶었고 추웠으며 일자리도 없었고 사회는 무질서했고 암울했다. 나 도 가정교사로 속직은 해결했으나 할 일이 없어서 대학원에 들어갔다. 임대영장이 나왔을 때 뭘 못이 기뻐다.

그런데도 우리는 요즘 대학생들처럼 불행하진 않았다. 전혀 막연하지만 꿈이 있었고 나름대로 낭만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보다 지금 몇십 배나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공부하는 오늘의 학생들

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엔 미래가 너무 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제도가 합리적이 되어서 과거처럼 허황한 꿈이 실 자리가 없어졌다. 주어진 상황과 갖춘 능력으로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 분명해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일지러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학생 수가 적어서 대학 졸업만 하면 인젠가는 좋은 자리를 얻을 것이라 희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대학생 수도 늘었고 실력 있는 졸업생도 많아져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진 것이다.

물론 모든 사회, 모든 사람은 경쟁에 시달린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쟁심은 좀 특별하다. 영국의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생활만족도 (average life satisfaction)는 조사대상 110개국 가운데 104위로 최하위에 속해 있다. 다른 분야의 눈부신 성취에도 한국인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도덕적 수준이 낮고 경쟁심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쟁심은 철저하게 자세중심적(世中心)인 한국인의 세계관에 근거해 있다. 초월적인 신과 내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야 한다. 기독교에서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立身揚名)이다. 유명해 지려면 사람들의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 1등을 하지 않으면 유명해 질 수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95점을 받고 2등 하는 것보다는 75점만더라도 1등 하는 것을 더 원할 정도다. 올림픽 경기에서 국가 순위를 매길 때 다른 나라들은 전체 메달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은 금메달의 수로 판정한다.

점수로 계산할 수 없고 아무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사랑, 겸손, 양보, 배려, 절제 등 성경적인 가치에 충실할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조만간 이런 가치로 무장된 인재가 우리 사회에서 평가될 날이 올 수도 있다.

한국인에게는 루터가 가르친 소명(召命, Beruf)의식이 약하다. 신발을 수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소명보다 열등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은 한국 문화에서는 낯설다. 자질, 취미, 기호, 능력보다는 다수의 이목과 평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금전적 소득의 다과에 따라 작장과 직위의 수가 결정된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 100만 명이나 되는데도 매출 실업자들이 우글거리는 것에는 그런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높은 경쟁심 때문에 한국은 빠른 기간에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했다. 원조받던 나라가 된 조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불행하다면 무엇 때문에 발전하는가? 발전이 늦어지고 경쟁에 지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 이젠 심각하게 반성할 때가 된 것 같다.

기독교 대학생들도 이런 무한경쟁에 같이 휩쓸리고 같이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 점수로 계산할 수 없고 아무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사랑, 겸손, 양보, 배려, 절제 등 성경적인 가치에 충실할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조만간 이런 가치로 무장된 인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인재로 평가될 날이 올 수도 있다.



손봉호 부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연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연스태 로망지대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로호포럼 대표이사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